WEBVTT

00:00:10.384 --> 00:00:11.529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629 --> 00:00:12.729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829 --> 00:00:15.315
오늘 이 시간에는
극문학과 수필입니다.

00:00:15.415 --> 00:00:19.575
산문 중에서도 극문학 같은 경우는
희곡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죠.

00:00:19.675 --> 00:00:23.164
그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
쓰는 일기문 같은 경우도

00:00:23.264 --> 00:00:24.434
수필에 해당하는데.

00:00:24.534 --> 00:00:26.660
최근에는 수필 같은 경우는
많이 나오지 않던데.

00:00:26.760 --> 00:00:29.562
그러나 이제 수능은
아무도 모르는 거니까

00:00:29.662 --> 00:00:31.963
그 내용들을 전부 다
알고 계셔야겠죠.

00:00:32.063 --> 00:00:33.645
첫 번째, 극문학부터 보겠습니다.

00:00:33.745 --> 00:00:35.420
극문학 희곡부터 볼게요.

00:00:35.520 --> 00:00:37.786
희곡 보면 연극의 대본입니다.

00:00:37.886 --> 00:00:41.035
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
때문에 시간, 공간, 인물의 수에

00:00:41.135 --> 00:00:42.167
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

00:00:42.267 --> 00:00:43.349
왜?

00:00:43.449 --> 00:00:46.208
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
1만 명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

00:00:46.308 --> 00:00:49.162
그러나 영화는 1만 명이든

1000만 명이든 가능합니다.

00:00:49.262 --> 00:00:51.827
막과 장으로 구성되며 극적인
대립과 갈등을 통해서

00:00:51.927 --> 00:00:53.615
긴장감을 조성합니다.

00:00:53.715 --> 00:00:55.571
세 가지가 나오는데요.

00:00:55.671 --> 00:00:57.503
해설, 지시문, 대사가 있어요.

00:00:57.603 --> 00:01:00.370
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
무대 장치, 인물, 배경을

00:01:00.470 --> 00:01:02.400
설명하는 게 바로 해설이고.

00:01:02.500 --> 00:01:06.029
지시문은 배경, 효과, 조명,
등장인물의 행동, 표정, 심리 등을

00:01:06.129 --> 00:01:07.291
지시합니다.

00:01:07.391 --> 00:01:08.501
특히 행동 지시문.

00:01:08.601 --> 00:01:12.161
괄호 쳐 놓고 놀라며, 뭐
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

00:01:12.261 --> 00:01:13.781
그게 바로 이제 행동 지시문이죠.

00:01:13.881 --> 00:01:17.262
등장인물의 동작, 표정, 말투, 심리,
입, 퇴장 등을 지시하고 있는 게

00:01:17.362 --> 00:01:18.684
바로 행동 지시문이고.

00:01:18.784 --> 00:01:21.725
무대 지시문은 뭐냐면 등장인물, 무대
장치,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합니다.

00:01:21.825 --> 00:01:24.528
불이 꺼지며, 뭐
이런 것들 있잖아요.

00:01:24.628 --> 00:01:28.242
대사 중에서는 여러분 대화,
독백, 방백 세 가지가 있는데.

00:01:28.342 --> 00:01:30.288
대화는 인물이 주고받는 거고요.

00:01:30.388 --> 00:01:32.164
독백은 상대방이 없어요.

00:01:32.264 --> 00:01:35.476
혼자 말하는 거고, 방백을 좀
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.

00:01:35.576 --> 00:01:37.859
옆에 있어요, 옆에 막 얘기하다가
그래, 그렇단 말이야

00:01:37.959 --> 00:01:39.581
그러더니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죠.

00:01:39.681 --> 00:01:40.653
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?

00:01:40.753 --> 00:01:41.893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01:41.993 --> 00:01:44.927
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
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

00:01:45.027 --> 00:01:48.500
약속하고 하는 말이 바로
방백이 되겠습니다.

00:01:48.600 --> 00:01:49.723
시나리오 보겠습니다.

00:01:49.823 --> 00:01:52.380
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며
시간, 공간, 인물의 수에

00:01:52.480 --> 00:01:54.985
제약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
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

00:01:55.085 --> 00:01:58.314
엄청난 많은 양의,
양이라고 하면 되나?

00:01:58.414 --> 00:02:01.724
많은 수의 사람도 등장할
수 있는 거죠.

00:02:01.824 --> 00:02:05.266
장면 번호 S#로 구성되며 시나리오
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.

00:02:05.366 --> 00:02:08.038
내레이션하고 이펙트하고
하는 게 효과음이고.

00:02:08.138 --> 00:02:11.669
그다음에 오버랩이라고 해서 다른
장면 위에 겹치면서 전환되는 게

00:02:11.769 --> 00:02:13.317
바로 이제 오버랩입니다.

00:02:13.417 --> 00:02:15.551
과거 회상을 하거나
이럴 때 적절하죠.

00:02:15.651 --> 00:02:17.740
C.U는 편의점은 아닙니다.

00:02:17.840 --> 00:02:21.708
이게 뭐냐면 클로즈업이라고
해서 화면에 확대되는 것을

00:02:21.808 --> 00:02:25.154
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를
쓸 때 편해요.

00:02:25.254 --> 00:02:28.642
뭐냐면 중심 소재를 부각할
때 클로즈업이 적절하고요.

00:02:28.742 --> 00:02:32.251
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나타낼
때 클로즈업 해서 표현하죠.

00:02:32.351 --> 00:02:33.879
페이드 인이라고 합니다.

00:02:33.979 --> 00:02:35.513
그다음에 화면이 밝아지는 거고.

00:02:35.613 --> 00:02:37.590
페이드 아웃, 화면이
점점 어두워입니다.

00:02:37.690 --> 00:02:40.489
D.E라고 하는 게 더블
익스포저라고 하는 건데요.

00:02:40.589 --> 00:02:42.005
저도 영어가 약해서.

00:02:42.105 --> 00:02:45.012
한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
만든 합성된 화면입니다.

00:02:45.112 --> 00:02:48.879
얘는 화면이 겹치면서 전환이 되는
거고, 얘는 합성되는 거고요.

00:02:48.979 --> 00:02:51.320
화면을 점점 작게
줄여서 만드는 거고.

00:02:51.420 --> 00:02:55.466
인서트라고 해서 화면과 화면 사이에
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거고요.

00:02:55.566 --> 00:02:57.601
그다음에 와이프 아웃이라고
한다고 합니다.

00:02:57.701 --> 00:03:00.720
화면을 닦아 없애면서 다음
화면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.

00:03:00.820 --> 00:03:04.340
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클로즈업,
이펙트 이거 중요하고요, 여러분.

00:03:04.440 --> 00:03:08.302
그다음에 내레이션이라고
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.

00:03:08.402 --> 00:03:09.573
이거 세 개 기억하시고.

00:03:09.673 --> 00:03:10.772
페이드 인, 페이드 아웃.

00:03:10.872 --> 00:03:13.732
여기 위에 나오는 6개 정도가
제일 중요한 거니까요.

00:03:13.832 --> 00:03:16.651
그 부분만 기억을
해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03:16.751 --> 00:03:20.652
형상화라고 하는 건데 희곡과
시나리오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

00:03:20.752 --> 00:03:22.056
하나의 장면으로 나타납니다.

00:03:22.156 --> 00:03:23.307
형상화되는 거죠.

00:03:23.407 --> 00:03:26.386
배우들의 연기와 의상, 소품,
무대 장치 등의 요소들로

00:03:26.486 --> 00:03:29.663
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을
형상화라고 합니다.

00:03:29.763 --> 00:03:34.281
형상화라고 하면 무대 장치, 배우들의
연기, 의상, 소품, 카메라,

00:03:34.381 --> 00:03:37.235
음향, 조명 등을 통해서 이제
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

00:03:37.335 --> 00:03:38.594
형상화라고 합니다.

00:03:38.694 --> 00:03:41.495
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.

00:03:41.595 --> 00:03:44.565
그다음에 수필은 뭐냐면 수필은
소재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

00:03:44.665 --> 00:03:49.587
글쓴이가 인생이나 자연에 대해서
생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체험과

00:03:49.687 --> 00:03:52.963
그에 대한 성찰을 쓴
글이 바로 수필이죠.

00:03:53.063 --> 00:03:56.716
그래서 글쓴이의 성품, 생각, 말투,
태도 등이 글에 직접 드러나며

00:03:56.816 --> 00:03:58.947
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게

00:03:59.047 --> 00:04:01.269
바로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4:01.369 --> 00:04:02.277
특징을 보면요.

00:04:02.377 --> 00:04:03.193
형식이 자유롭습니다.

00:04:03.293 --> 00:04:06.276
특별한 구성상의 제약이
따르지 않고,

00:04:06.376 --> 00:04:08.748
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
게 형식의 자유로움이고.

00:04:08.848 --> 00:04:10.909
자기 표현의 글입니다,
자기 표현의 글이고.

00:04:11.009 --> 00:04:13.441
글쓴이가 자신의
이야기를 쓰는 것이므로

00:04:13.541 --> 00:04:16.537
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자신을
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.

00:04:16.637 --> 00:04:18.873
이에 따라 글쓴이의 인생관이나
사상, 감정 등이

00:04:18.973 --> 00:04:21.020
글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4:21.120 --> 00:04:22.336
개성이 강합니다.

00:04:22.436 --> 00:04:25.564
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
글쓴이의 체험이나 사상을 표현하는

00:04:25.664 --> 00:04:28.865
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

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.

00:04:28.965 --> 00:04:30.366
제재가 다양한데요.

00:04:30.466 --> 00:04:32.031
소재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.

00:04:32.131 --> 00:04:33.994
일상생활에서 겪을 수
있는 모든 것.

00:04:34.094 --> 00:04:37.141
즉, 대상에 대한 관찰, 체험,
관조, 사색, 감상 등

00:04:37.241 --> 00:04:40.889
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삼을 수 있는
게 바로 제재가 다양한 거겠죠.

00:04:40.989 --> 00:04:42.333
비전문적입니다.

00:04:42.433 --> 00:04:45.363
누구나 쓸 수 있는 게
바로 수필이 되겠죠.

00:04:45.463 --> 00:04:48.769
수필의 유형은 사물이나 대상,
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

00:04:48.869 --> 00:04:50.850
보이느냐에 따라서
두 가지로 나뉘는데.

00:04:50.950 --> 00:04:52.583
경수필과 중수필입니다.

00:04:52.683 --> 00:04:54.169
경 자가 가벼울 경 자예요.

00:04:54.269 --> 00:04:55.850
중수필은 무거울 중 자죠.

00:04:55.950 --> 00:04:58.851
주변에서 일어나는
신변잡기적이라고 하는 게.

00:04:58.951 --> 00:05:02.301
신변잡기가 뭐냐면 주변에 일어나는
일을 신변잡기라고 합니다.

00:05:02.401 --> 00:05:05.886
개인의 체험, 느낌, 인상 등을
쓴 개인적인 수필에 해당하고요.

00:05:05.986 --> 00:05:08.028
일기, 편지, 기행문 이런 겁니다.

00:05:08.128 --> 00:05:12.198
중수필은 보편성 있는 일정한 주제를

가지고 객관적 관찰을 바탕으로

00:05:12.298 --> 00:05:13.852
사색적, 논리적.

00:05:13.952 --> 00:05:14.962
이게 중요하죠.

00:05:15.062 --> 00:05:17.510
사색적이다, 깊이 생각에
잠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5:17.610 --> 00:05:19.698
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건데.

00:05:19.798 --> 00:05:24.269
평론이라든가 비평문이라든가 서평은
책에 대한 평가를 쓴 글이거든요.

00:05:24.369 --> 00:05:28.310
이런 것들은 중수필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05:28.410 --> 00:05:31.670
수필의 내용 요소를 보면
소재, 수필의 글감으로서

00:05:31.770 --> 00:05:34.044
자연, 일상적 사물이나
사건, 글쓴이의 경험.

00:05:34.144 --> 00:05:35.408
정말 다양합니다.

00:05:35.508 --> 00:05:38.510
글쓴이의 관점과 태도는 대상에
대한 글쓴이의 느낌이나 생각으로

00:05:38.610 --> 00:05:40.777
글의 성격이나 주제를
결정하는 거죠.

00:05:40.877 --> 00:05:44.745
주제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정서나
인생관, 가치관이 주로 나타나는 게

00:05:44.845 --> 00:05:47.772
바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.

00:05:47.872 --> 00:05:49.498
문제로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.

00:05:49.598 --> 00:05:52.928
희곡은 시나리오에 비해서 시간,
공간, 인물의 수에 제약이 적다.

00:05:53.028 --> 00:05:53.598
틀렸죠.

00:05:53.698 --> 00:05:56.475
희곡이 훨씬 더 제약이 많습니다.

00:05:56.575 --> 00:05:59.569
그다음에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며
막과 장으로 구성되는 것은

00:05:59.669 --> 00:06:01.828
바로 뭐냐면 희곡이 되겠죠.

00:06:01.928 --> 00:06:02.959
X가 되겠네요.

00:06:03.059 --> 00:06:05.752
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치면서
전환되는 효과를 나타내는

00:06:05.852 --> 00:06:09.205
시나리오 용어가, 다른 장면이
겹치는 것은 O.L,

00:06:09.305 --> 00:06:10.689
오버랩이라고 하는 거죠.

00:06:10.789 --> 00:06:14.294
그다음에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점
어두워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.

00:06:14.394 --> 00:06:16.817
수필의 성격으로 보기
어려운 걸 찾아라 그러면

00:06:16.917 --> 00:06:18.529
전문성을 찾으시면 되겠죠.

00:06:18.629 --> 00:06:22.366
전문적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글이기
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.

00:06:22.466 --> 00:06:25.481
평론, 비평문, 칼럼 등의
글은 중수필에 속하게 되겠죠.

00:06:25.581 --> 00:06:29.241
문제 개념 확인,
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.

00:06:29.341 --> 00:06:32.338
그러면 뒤에 나오는
내용을 보니까요.

00:06:32.438 --> 00:06:34.776
독 짓는 늙은이라고
하는 글이 있어요.

00:06:34.876 --> 00:06:38.377
여러분, 독 짓는 늙은이라고
하는 게 황순원의 소설이거든요.

00:06:38.477 --> 00:06:43.355
그 황순원의 소설을 첫 번째
독 짓는 늙은이라고 해서

00:06:43.455 --> 00:06:45.970
(가) 작품 같은 경우는
시나리오로 만든 거고요.

00:06:46.070 --> 00:06:50.025
오른쪽에 (나) 작품은 바로 뭐냐면
소설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.

00:06:50.125 --> 00:06:53.481
뒤에 문제를 먼저
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.

00:06:53.581 --> 00:06:54.627
1번 문제 볼게요.

00:06:54.727 --> 00:06:58.415
보기의 관점에서 ⓐ, ⓑ를 이해한
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06:58.515 --> 00:07:01.722
ⓐ, ⓑ가 앞에 나와 있는 거겠죠.

00:07:01.822 --> 00:07:03.145
ⓐ, ⓑ를 이해해라.

00:07:03.245 --> 00:07:04.315
보겠습니다.

00:07:04.415 --> 00:07:08.741
장인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,
장인 정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.

00:07:08.841 --> 00:07:12.111
예술혼, 예술적인 완성도를
높이고자 한다 이런 겁니다.

00:07:12.211 --> 00:07:16.850
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
기술자의 모습과, 실용적 모습.

00:07:16.950 --> 00:07:19.904
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
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

00:07:20.004 --> 00:07:21.487
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.

00:07:21.587 --> 00:07:22.648
두 가지로 나뉘어지죠.

00:07:22.748 --> 00:07:25.734
오랜 시간 숙련 과정에서
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

00:07:25.834 --> 00:07:29.305
경지에 오른 장인은 자신이
제작하는 작품을 통해

00:07:29.405 --> 00:07:31.211
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.

00:07:31.311 --> 00:07:34.388
그러면 앞에 나오는 두 작품
모두 이런 장인의 모습이

00:07:34.488 --> 00:07:35.648
나타나 있다는 겁니다.

00:07:35.748 --> 00:07:37.404
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.

00:07:37.504 --> 00:07:41.052
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
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.

00:07:41.152 --> 00:07:44.059
이것은 등장인물의 심리를
찾는 문제입니다.

00:07:44.159 --> 00:07:46.472
심리를 파악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.

00:07:46.572 --> 00:07:50.254
㉠, ㉡ 각각에 나오는
심리를 보셔야 되겠죠.

00:07:50.354 --> 00:07:52.422
[A]의 서술 방식으로
가장 적절한 건데.

00:07:52.522 --> 00:07:53.831
서술 방식 문제입니다.

00:07:53.931 --> 00:07:57.543
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보기를
참고하여 가,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07:57.643 --> 00:07:58.736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7:58.836 --> 00:08:00.932
이 보기도 역시 앞에 내용에
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.

00:08:01.032 --> 00:08:02.056
보기를 봅니다.

00:08:02.156 --> 00:08:05.857
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
달리, 원작과 달라졌습니다.

00:08:05.957 --> 00:08:08.811
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
사건을 재구성합니다.

00:08:08.911 --> 00:08:13.016
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
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

00:08:13.116 --> 00:08:14.465
개연성을 높인다.

00:08:14.565 --> 00:08:17.594
개연성은 그렇게 행동할 수
있는 가능성, 이런 뜻입니다.

00:08:17.694 --> 00:08:19.582
가능성이라는 말과 똑같아요.

00:08:19.682 --> 00:08:22.314
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
사용과 지시문을 통한

00:08:22.414 --> 00:08:26.930
시각적 묘사는 현장감을 높이고
현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죠.

00:08:27.030 --> 00:08:30.517
그러니까 (가) 작품과 (나)
작품을 보기에 시나리오의 특성을

00:08:30.617 --> 00:08:33.797
바탕으로 해서, 그러면 뒤에
소설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와

00:08:33.897 --> 00:08:36.652
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
바탕으로 해서 감상하는 거겠죠.

00:08:36.752 --> 00:08:38.597
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

00:08:38.697 --> 00:08:41.445
뜸막 안입니다.

00:08:41.545 --> 00:08:46.953
뜸막은 막이라고 해서 물건
만들고 이런 곳이죠.

00:08:47.053 --> 00:08:48.239
갑니다.

00:08:48.339 --> 00:08:49.542
자리에 누운 송 영감.

00:08:49.642 --> 00:08:52.438
물건 만들면 서 거기에서 숙소도
같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.

00:08:52.538 --> 00:08:55.215
송 영감이 나직히 신음을 한다.

00:08:55.315 --> 00:08:57.148
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.

00:08:57.248 --> 00:08:58.392
약 잡수셔야죠.

00:08:58.492 --> 00:08:59.356
옥수가 처죠.

00:08:59.456 --> 00:09:01.050
약 잡수셔야죠.

00:09:01.150 --> 00:09:02.541
눈을 뜨며 음?

00:09:02.641 --> 00:09:05.546
옥수가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
부축하며 약그릇을 대준다.

00:09:05.646 --> 00:09:07.328
약을 마시는 송 영감.

00:09:07.428 --> 00:09:10.646
걱정스럽게, 가만 어떻게 됐지?

00:09:10.746 --> 00:09:13.003
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.

00:09:13.103 --> 00:09:17.210
걱정스럽게 이렇게
얘기하고 있습니다.

00:09:17.310 --> 00:09:21.808
그다음에 그의 시선은 구석에
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.

00:09:21.908 --> 00:09:25.793
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
백자기의 형체가 나와 있습니다.

00:09:25.893 --> 00:09:31.393
DIS라고 해서 뭐냐면 디졸브라고
해서 화면이 점점 사라지면서

00:09:31.493 --> 00:09:33.433
그 위에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데.

00:09:33.533 --> 00:09:37.651
그 뒤에 다른 화면이 바로 125번
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.

00:09:37.751 --> 00:09:40.466
그러면 여러분, ㉠에
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.

00:09:40.566 --> 00:09:43.381
㉠은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?

00:09:43.481 --> 00:09:44.460
2번 보죠.

00:09:44.560 --> 00:09:46.952
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9:47.052 --> 00:09:51.474
1번,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
독에 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.

00:09:51.574 --> 00:09:54.454
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
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라고

00:09:54.554 --> 00:09:55.909
얘기했단 말이야.

00:09:56.009 --> 00:09:59.527
독은 어떻게 됐지라고 물어보니까
얘가 독을 끌어내야죠라고

00:09:59.627 --> 00:10:00.898
얘기한 것뿐이에요.

00:10:00.998 --> 00:10:04.463
그러면 송 영감보다 독에 가 있는
것은 바로 누구냐면 송 영감이겠죠.

00:10:04.563 --> 00:10:08.716
관심이 더 가 있는 건 바로 송
영감이니까 1번 선택지는 틀린 겁니다.

00:10:08.816 --> 00:10:10.173
2번 문제.

00:10:10.273 --> 00:10:11.157
그다음 볼게요.

00:10:11.257 --> 00:10:12.111
가마 앞입니다.

00:10:12.211 --> 00:10:14.441
황혼, 저녁 무렵입니다.

00:10:14.541 --> 00:10:19.799
마당에 놓인 중옹, 통옹, 반옹
등 갖가지 독이 있습니다.

00:10:19.899 --> 00:10:21.242
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.

00:10:21.342 --> 00:10:22.437
독, 항아리입니다, 여러분.

00:10:22.537 --> 00:10:24.765
그런데 그 형태가
모두 고르지 않아요.

00:10:24.865 --> 00:10:29.252
비틀어진 독, 밑이 내려앉은
독,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.

00:10:29.352 --> 00:10:34.383
왱손이, 석현이 걱정스럽게
보고 있습니다.

00:10:34.483 --> 00:10:35.405
왜?

00:10:35.505 --> 00:10:38.785
가마터에서 이게 제대로 나오지
않았으니까 독의 상태가 구체적으로,

00:10:38.885 --> 00:10:42.235

독의 상태가 잘 나오지는
않은 것 같죠.

00:10:42.335 --> 00:10:44.116
그러니까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.

00:10:44.216 --> 00:10:46.303
왱손이와 석현이는 누군지
아직 모르겠습니다.

00:10:46.403 --> 00:10:48.918
그러자 송 영감이
비실거리며 달려온다.

00:10:49.018 --> 00:10:50.553
독 하나하나 살핍니다.

00:10:50.653 --> 00:10:53.227
혼잣말처럼, 이런 게
바로 지시문이죠.

00:10:53.327 --> 00:10:54.101
이럴 수가.

00:10:54.201 --> 00:10:55.683
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.

00:10:55.783 --> 00:10:57.047
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.

00:10:57.147 --> 00:10:58.472
절망하고 있어요.

00:10:58.572 --> 00:10:59.672
아니야, 이건 독이 아니야.

00:10:59.772 --> 00:11:01.427
계속 보며, 이것도 이것도.

00:11:01.527 --> 00:11:03.174
비통하게, 이것은 그냥 흙덩이야.

00:11:03.274 --> 00:11:06.133
가마 앞에 달려가서
망치를 들고 있습니다.

00:11:06.233 --> 00:11:08.117
망치를 들어서 뭔가 때릴 것 같죠?

00:11:08.217 --> 00:11:10.371
왱손이 아니 여보게,
이게 무슨 짓인가?

00:11:10.471 --> 00:11:13.466
왱손이는 그러면 같이 일을
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죠.

00:11:13.566 --> 00:11:14.523
송 영감, 비켜.

00:11:14.623 --> 00:11:15.483

뿌리친다.

00:11:15.583 --> 00:11:16.956
나가떨어지는 왱손이.

00:11:17.056 --> 00:11:18.127
㉡을 볼게요.

00:11:18.227 --> 00:11:19.884
문제 왼쪽으로 가서 2번 봅니다.

00:11:19.984 --> 00:11:24.419
왱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
비롯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.

00:11:24.519 --> 00:11:25.943
이게 무슨 짓인가?

00:11:26.043 --> 00:11:28.708
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
있는 건 아닌 것 같죠.

00:11:28.808 --> 00:11:31.264
왜 이렇게 때리려고
하느냐, 그러지 마라.

00:11:31.364 --> 00:11:33.659
이렇게 얘기하고 있고
말리고 있는 것뿐이지.

00:11:33.759 --> 00:11:35.929
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하는
게 송 영감의 행동을

00:11:36.029 --> 00:11:39.302
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
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.

00:11:39.402 --> 00:11:41.456
나가떨어지는 왱손이.

00:11:41.556 --> 00:11:42.456
잡으며 안 됩니다.

00:11:42.556 --> 00:11:44.796
성한 것도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.

00:11:44.896 --> 00:11:45.931
닥쳐!

00:11:46.031 --> 00:11:47.506
이건 부정을 탔어.

00:11:47.606 --> 00:11:50.221
모두 쳐부셔야 해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11:50.321 --> 00:11:51.793
㉢ 내용을 한번 볼까요?

00:11:51.893 --> 00:11:55.916

㉢ 보시면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
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

00:11:56.016 --> 00:11:57.411
송 영감의 기준과 다르다.

00:11:57.511 --> 00:12:00.072
그렇죠, 얘는 성한 것도
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

00:12:00.172 --> 00:12:03.017
얘는 뭐냐면 부정 탔으니까 이건
전부 다 다 잘못된 거야,

00:12:03.117 --> 00:12:05.130
여기 가마에서 나온 건
다 잘못된 거야.

00:12:05.230 --> 00:12:08.414
이게 바로 이제 독에 대한 기준,
가치가 서로 다른 거죠.

00:12:08.514 --> 00:12:12.152
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
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00:12:12.252 --> 00:12:13.624
모두 쳐부셔야 해.

00:12:13.724 --> 00:12:18.000
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
독을 박살내기 시작한다.

00:12:18.100 --> 00:12:19.624
독을 박살내기 시작해요.

00:12:19.724 --> 00:12:22.318
여기 ⓐ가 바로 독을
박살내는 부분이고요.

00:12:22.418 --> 00:12:25.830
ⓐ 부분이 바로 독을 박살내는
부분인데, ⓐ 부분은.

00:12:25.930 --> 00:12:27.770
그렇죠, 1번 문제에 나오는 거죠.

00:12:27.870 --> 00:12:28.954
독을 박살냅니다.

00:12:29.054 --> 00:12:29.998
왜 박살낼까요?

00:12:30.098 --> 00:12:31.329
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.

00:12:31.429 --> 00:12:34.589
송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을
박살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

00:12:34.689 --> 00:12:37.742

자기 장인 정신, 자기의 기준에
맞지 않기 때문이겠죠.

00:12:37.842 --> 00:12:39.642
그다음에 뚜왕 뚜왕.

00:12:39.742 --> 00:12:44.224
이게 여러분, 이게 참 재미있었던
게 작년인가 재작년에

00:12:44.324 --> 00:12:48.183
9월 모의평가였는데, 학생들이
시험 문제에서 나와서

00:12:48.283 --> 00:12:49.535
기억나는 게 뭐냐?

00:12:49.635 --> 00:12:52.462
그때 당시에 콘크리트라고 하고
비문학 되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

00:12:52.562 --> 00:12:56.080
1위가 뭐냐면 콘크리트이고,
2위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

00:12:56.180 --> 00:12:58.126
가장 기억에 남는 게
뚜왕 뚜왕이었습니다.

00:12:58.226 --> 00:13:00.521
이 뚜왕 뚜왕이라고
하는 게 이펙트입니다.

00:13:00.621 --> 00:13:02.113
박살 나는 독들인데.

00:13:02.213 --> 00:13:05.323
뚜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이 박살
나는 그 소리일 뿐이에요, 여러분.

00:13:05.423 --> 00:13:07.359
박살 나는 독들.

00:13:07.459 --> 00:13:10.774
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
것처럼 느껴지는 옥수입니다.

00:13:10.874 --> 00:13:12.158
옥수가 아까 누구였죠?

00:13:12.258 --> 00:13:13.874
아내였습니다.

00:13:13.974 --> 00:13:16.709
왱손이가 비통 혼잣말같이,
자네 환장했구먼.

00:13:16.809 --> 00:13:19.322
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.

00:13:19.422 --> 00:13:23.138

석현이라고 하는 애는 매섭게 보다가
휑하니 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

00:13:23.238 --> 00:13:26.161
여기에서 뭔가 갈등이 있겠구나,
이걸 짐작하시면 되죠.

00:13:26.261 --> 00:13:27.527
조수인 것 같죠.

00:13:27.627 --> 00:13:29.528
이 석현이라고 하는 인물이
조수인 것 같은데.

00:13:29.628 --> 00:13:31.570
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.

00:13:31.670 --> 00:13:34.803
저런 스승을 내가 섬겨야 되나,
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.

00:13:34.903 --> 00:13:38.278
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
바라보고 있습니다.

00:13:38.378 --> 00:13:39.418
뚜왕 뚜왕.

00:13:39.518 --> 00:13:41.265
송 영감이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.

00:13:41.365 --> 00:13:42.787
풀썩 주저앉고 만다.

00:13:42.887 --> 00:13:44.650
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
새어 나온다.

00:13:44.750 --> 00:13:46.397
뚜왕 뚜왕 뚜왕.

00:13:46.497 --> 00:13:50.157
옥수 귀에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
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입니다.

00:13:50.257 --> 00:13:53.744
송 영감 조각난 독을
쓸어안고 오열해 웁니다.

00:13:53.844 --> 00:13:55.126
석양에 물든 하늘.

00:13:55.226 --> 00:13:56.976
다시 또 디졸브 되고 있는 거죠.

00:13:57.076 --> 00:14:01.135
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
송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이

00:14:01.235 --> 00:14:04.910
얼마나 장인 정신을 가지고

있는지가 이 화면을 통해서

00:14:05.010 --> 00:14:07.301
우리가 구현되고 있다는
걸 알 수 있습니다.

00:14:07.401 --> 00:14:15.880
(나) 작품은 황순원의 독 짓는
늙은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.

00:14:15.980 --> 00:14:19.219
이걸 바탕으로 해서
이걸 만든 거겠죠.

00:14:19.319 --> 00:14:20.261
가볼까요?

00:14:20.361 --> 00:14:23.016
차차 송 영감의 솜씨에는
틈이 생기기 시작했다.

00:14:23.116 --> 00:14:25.166
앞에 거랑 다른 내용이라고
얘기했습니다.

00:14:25.266 --> 00:14:27.550
다른 내용 시나리오가
다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

00:14:27.650 --> 00:14:29.957
다른 글이라고 생각하시고
보셔야겠죠.

00:14:30.057 --> 00:14:31.945
송 영감의 솜씨에는
틈이 생기기 시작했다.

00:14:32.045 --> 00:14:35.791
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
두드려 올릴 때.

00:14:35.891 --> 00:14:40.617
조마구와 부채마치는 옹기 제작할 때
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라고 하죠.

00:14:40.717 --> 00:14:44.985
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
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.

00:14:45.085 --> 00:14:48.820
아내와 조수, 아까 앞에
나왔던 옥수이고 석현인데.

00:14:48.920 --> 00:14:52.326
여기에서는 인물 설정이 다르게
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

00:14:52.426 --> 00:14:53.601
조금만 더 보죠.

00:14:53.701 --> 00:14:55.744

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.

00:14:55.844 --> 00:14:58.421
아내와 조수의 영상이
계속 떠올라요.

00:14:58.521 --> 00:15:01.685
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
조수를 때리는지.

00:15:01.785 --> 00:15:04.294
아내와 조수가 뭔가 부정을
저지른 것 같죠?

00:15:04.394 --> 00:15:07.625
그래서 이렇게 때리는지
분간 못 하는 새.

00:15:07.725 --> 00:15:11.236
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
지어지곤 했다.

00:15:11.336 --> 00:15:14.947
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내와
조수가 뭔가 부정한 일을

00:15:15.047 --> 00:15:16.492
저질렀던 것 같고요.

00:15:16.592 --> 00:15:19.668
그것 때문에 이제 송
영감의 독 짓는 실력이

00:15:19.768 --> 00:15:21.132
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.

00:15:21.232 --> 00:15:22.355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15:22.455 --> 00:15:24.823
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
떨려, 전이라고 하는 것도

00:15:24.923 --> 00:15:26.978
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
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.

00:15:27.078 --> 00:15:29.084
그걸 전이라고 하는데.

00:15:29.184 --> 00:15:32.291
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
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

00:15:32.391 --> 00:15:33.882
잘 잡히지 않았다.

00:15:33.982 --> 00:15:35.311
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.

00:15:35.411 --> 00:15:39.676

조수인, 조수와 아내의
부정 때문에.

00:15:39.776 --> 00:15:40.731
열 때문도 있었다.

00:15:40.831 --> 00:15:44.726
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
독 옆에 눕고 말았다.

00:15:44.826 --> 00:15:46.538
2번에 4번을 볼까요?

00:15:46.638 --> 00:15:48.930
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
구워내지 못하는 가마에

00:15:49.030 --> 00:15:52.523
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
실력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

00:15:52.623 --> 00:15:54.318
한탄하고 있는 것뿐이죠.

00:15:54.418 --> 00:15:56.977
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
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.

00:15:57.077 --> 00:15:59.143
왱손이도 흙 몇 덩이를
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.

00:15:59.243 --> 00:16:04.681
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
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

00:16:04.781 --> 00:16:05.946
쪼그리고 앉아 있었다.

00:16:06.046 --> 00:16:07.140
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.

00:16:07.240 --> 00:16:10.387
이 아내가 조수하고 도망갔나 봐요.

00:16:10.487 --> 00:16:12.818
그러니까 엄마를 계속
기다리고 있는 거죠.

00:16:12.918 --> 00:16:14.008
㉡ 볼까요?

00:16:14.108 --> 00:16:17.468
애가 언제나처럼 왱손이가 아버지를
모시고 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

00:16:17.568 --> 00:16:19.048
되어 있는데, 아니죠.

00:16:19.148 --> 00:16:20.229
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

00:16:20.329 --> 00:16:21.183
뒤에 나왔잖아요.

00:16:21.283 --> 00:16:23.105
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.

00:16:23.205 --> 00:16:26.342
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
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

00:16:26.442 --> 00:16:31.290
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
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.

00:16:31.390 --> 00:16:34.576
조수에게 장감이라고 하는
것은 장보러 같이 갔다가

00:16:34.676 --> 00:16:36.851
물건 들려서 이렇게 왔었나 봐요.

00:16:36.951 --> 00:16:38.693
그런데 바람나서 도망간 거예요.

00:16:38.793 --> 00:16:41.166
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
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

00:16:41.266 --> 00:16:44.056
벌떡 다시 일어나 다시
독 짓기를 시작했어요.

00:16:44.156 --> 00:16:46.316
앞에 ⓐ, ⓑ 구분할 수 있겠죠.

00:16:46.416 --> 00:16:48.925
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
겨우 한 개를 짓고는

00:16:49.025 --> 00:16:51.227
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.

00:16:51.327 --> 00:16:54.890
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
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

00:16:54.990 --> 00:16:57.161
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.

00:16:57.261 --> 00:17:00.928
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
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,

00:17:01.028 --> 00:17:02.305
죽었다고 생각했나 봐요.

00:17:02.405 --> 00:17:05.526
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
아버지 앞에 놓았다.

00:17:05.626 --> 00:17:08.319
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
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.

00:17:08.419 --> 00:17:11.886
송 영감은 확 분노가
치밀어, 누가 거랑질해.

00:17:11.986 --> 00:17:15.395
거랑질, 비렁뱅이질, 거지처럼.

00:17:15.495 --> 00:17:17.818
거랑질해 오라더냐고
밥그릇을 밀쳐 놓자

00:17:17.918 --> 00:17:19.385
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.

00:17:19.485 --> 00:17:23.685
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
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

00:17:23.785 --> 00:17:26.710
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
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

00:17:26.810 --> 00:17:29.980
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
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

00:17:30.080 --> 00:17:32.957
한 술 입에 떠넣으며
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

00:17:33.057 --> 00:17:36.487
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
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

00:17:36.587 --> 00:17:38.906
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
치밀어 올라오곤 해

00:17:39.006 --> 00:17:41.537
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.

00:17:41.637 --> 00:17:45.690
너무 슬프지 않아요, 이런 것들이?

00:17:45.790 --> 00:17:49.572
뭐냐면 조수하고 아내하고
바람나서 도망가 버리고

00:17:49.672 --> 00:17:52.875
거의 뭐 아침에 겨우 한
숟가락 뜨든 말든 하고.

00:17:52.975 --> 00:17:54.757
아빠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.

00:17:54.857 --> 00:17:56.857
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

하면서 흔들어 깨우는

00:17:56.957 --> 00:17:58.184
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.

00:17:58.284 --> 00:17:59.168
상당히 좀 슬프네요.

00:17:59.268 --> 00:18:02.303
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결론을
저는 알고 있으니까.

00:18:02.403 --> 00:18:04.229
우선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.

00:18:04.329 --> 00:18:09.500
다음 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
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.

00:18:09.600 --> 00:18:13.494
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
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.

00:18:13.594 --> 00:18:16.885
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
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

00:18:16.985 --> 00:18:20.884
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
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

00:18:20.984 --> 00:18:23.624
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
더 무겁게 했다.

00:18:23.724 --> 00:18:26.352
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
다 먹는 듯했다.

00:18:26.452 --> 00:18:29.922
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
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.

00:18:30.022 --> 00:18:32.795
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거죠.

00:18:32.895 --> 00:18:37.238
흙 이기던 왱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
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

00:18:37.338 --> 00:18:40.234
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
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

00:18:40.334 --> 00:18:43.687
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
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,

00:18:43.787 --> 00:18:47.269
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
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.

00:18:47.369 --> 00:18:49.502
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
궁금한가요, 여러분?

00:18:49.602 --> 00:18:52.574
결국 이 아이는 앵두나뭇집
할머니한테 맡기죠.

00:18:52.674 --> 00:18:55.163
본인이 키울 수 없으니까 맡기고,

00:18:55.263 --> 00:18:59.019
마지막에 이제 가마를
마지막에 굽는 장면에서

00:18:59.119 --> 00:19:03.869
이제 이 송 영감이 가마를 구울 때
가마에 같이 들어가서 죽어요.

00:19:03.969 --> 00:19:07.076
그렇게 이제 마지막 자살을
하면서 끝납니다.

00:19:07.176 --> 00:19:08.051
볼까요?

00:19:08.151 --> 00:19:09.490
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19:09.590 --> 00:19:12.326
(가)는 OO과 지시문을 통해.

00:19:12.426 --> 00:19:13.660
대화와 지시문이겠죠?

00:19:13.760 --> 00:19:15.999
대화와 지시문을 통해서 대사죠.

00:19:16.099 --> 00:19:19.353
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,
(나)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

00:19:19.453 --> 00:19:20.775
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00:19:20.875 --> 00:19:22.460
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.

00:19:22.560 --> 00:19:24.423
(나)에서는 아내가 구체적으로
드러나지 않으나.

00:19:24.523 --> 00:19:26.480
(나)에서 아내가 구체적으로
나타나지는 않죠.

00:19:26.580 --> 00:19:32.127
(가)에서는 옥수라는 구체적인
인물로 등장합니다, 그렇죠?

00:19:32.227 --> 00:19:33.945
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9:34.045 --> 00:19:34.900
1번 볼까요?

00:19:35.000 --> 00:19:38.552
ⓐ, ⓑ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9:38.652 --> 00:19:40.824
장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.

00:19:40.924 --> 00:19:42.227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9:42.327 --> 00:19:43.353
보겠습니다.

00:19:43.453 --> 00:19:46.060
1번, 아니야 이건 독이
아니야는 ⓐ의 원인이 되는.

00:19:46.160 --> 00:19:49.995
ⓐ 독 짓기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
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낸다.

00:19:50.095 --> 00:19:52.188
맞죠.

00:19:52.288 --> 00:19:54.648
독 짓기라고 하는 게
앞에서 뭐라고 했냐면

00:19:54.748 --> 00:20:00.858
독을 박살내는 원인이 되는 장인의
엄격한 미적 기준을 나타낸다.

00:20:00.958 --> 00:20:02.839
그래서 독을 깨는 거잖아요.

00:20:02.939 --> 00:20:05.315
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,
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

00:20:05.415 --> 00:20:08.349
ⓑ를 향한, 독 짓기를 통한 장인의
예술가적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.

00:20:08.449 --> 00:20:10.128
적절합니다.

00:20:10.228 --> 00:20:12.756
적절하니까 1번 아니네요.

00:20:12.856 --> 00:20:15.867
흙덩이다라는 장인의 가치
판단으로 ⓐ의 동기.

00:20:15.967 --> 00:20:17.864
독을 깨는 동기가 나타나는 거고요.

00:20:17.964 --> 00:20:22.682
흙 몇 덩이는 ⓑ에서 장인이
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

00:20:22.782 --> 00:20:24.450
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.

00:20:24.550 --> 00:20:25.504
이것도 적절하겠네요.

00:20:25.604 --> 00:20:28.051
독을 깨는 거고, 독을
만드는 거니까요.

00:20:28.151 --> 00:20:30.424
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는.

00:20:30.524 --> 00:20:31.564
누가?

00:20:31.664 --> 00:20:35.160
석현이라고 하는 그 조수가
매섭게 보다가 휑하니 간다는

00:20:35.260 --> 00:20:36.554
독을 깨잖아요.

00:20:36.654 --> 00:20:39.074
그거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
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준다.

00:20:39.174 --> 00:20:41.327
매섭게 보는 거니까
갈등이 나타난 거고.

00:20:41.427 --> 00:20:43.555
조수의 환영이 나타나죠.

00:20:43.655 --> 00:20:46.649
ⓑ의 과정에서, ⓑ의 과정,
독을 만드는 과정에서

00:20:46.749 --> 00:20:49.465
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
갈등 요인을 드러낸다.

00:20:49.565 --> 00:20:53.261
조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
걸 알 수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20:53.361 --> 00:20:55.555
풀썩 주저앉고 만다고 했는데.

00:20:55.655 --> 00:21:01.766
독 깨기, 독 박살내는 걸 계기로
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되는 걸 보여준다.

00:21:01.866 --> 00:21:05.667
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
먹는 듯했다는 ⓑ의 과정에서

00:21:05.767 --> 00:21:07.565
부딪히는 장인으로, 이게 틀렸네요.

00:21:07.665 --> 00:21:10.196
장인으로서의 능력에 한계를
드러낸다고 했는데.

00:21:10.296 --> 00:21:12.922
앞을 볼까요?

00:21:13.022 --> 00:21:16.986
이건 뭐냐면 일이 좀
느리단 말이야.

00:21:17.086 --> 00:21:21.912
일이 좀 느리니까 사십 년래 없이
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것은

00:21:22.012 --> 00:21:25.046
일이 계속 느려지는 모습만
나타내고 있는 것뿐이에요.

00:21:25.146 --> 00:21:28.427
부딪힌 장인의 능력의 한계 상황을
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

00:21:28.527 --> 00:21:30.541
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21:30.641 --> 00:21:34.762
뭐냐면 사십 년래 숯내를
다 먹는 듯했다는 것은

00:21:34.862 --> 00:21:38.469
일을 하는데 뭔가 병에
걸리고 아프단 말이에요.

00:21:38.569 --> 00:21:40.381
그래서 일의 진척이 느리잖아요.

00:21:40.481 --> 00:21:43.403
그래서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,
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.

00:21:43.503 --> 00:21:46.567
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
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죠.

00:21:46.667 --> 00:21:50.054
ⓐ의 행동은 이후에 조각난
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으로

00:21:50.154 --> 00:21:52.444
미적 가치 추구의
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죠.

00:21:52.544 --> 00:21:55.903
독을 짓는 것을 그만두려고
하지는 않는다는 것은

00:21:56.003 --> 00:21:58.085
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
열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

00:21:58.185 --> 00:21:59.476
4번이 정답입니다.

00:21:59.576 --> 00:22:01.959
이 문제가 좀
어려웠습니다, 여러분.

00:22:02.059 --> 00:22:06.477
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
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.

00:22:06.577 --> 00:22:09.365
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죠.

00:22:09.465 --> 00:22:11.646
기준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.

00:22:11.746 --> 00:22:12.977
정답 3번이었습니다.

00:22:13.077 --> 00:22:14.610
아까 봤던 것 같고요.

00:22:14.710 --> 00:22:17.286
[A]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
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.

00:22:17.386 --> 00:22:22.114
[A]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
송 영감을 흔들어 깨웠고

00:22:22.214 --> 00:22:24.207
애가 흔들어 깨웠던
그 장면 나오죠?

00:22:24.307 --> 00:22:27.569
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
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22:27.669 --> 00:22:31.796
우선 시간의 흐름을
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

00:22:31.896 --> 00:22:34.691
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
부각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0:22:34.791 --> 00:22:36.962
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지
한번 확인해 볼까요?

00:22:37.062 --> 00:22:39.243
어두운 속에서 애가
흔들어 깨웠다고 했고,

00:22:39.343 --> 00:22:44.251
밥을 넘길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

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죠.

00:22:44.351 --> 00:22:48.703
밥을 먹고 있는 그 장면만 나와 있는
것뿐이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.

00:22:48.803 --> 00:22:53.009
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인물 간의
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

00:22:53.109 --> 00:22:54.502
인물에 대한 서술자의
평가가 제시되어 있다.

00:22:54.602 --> 00:22:56.997
서술자가 개입된 부분이 없었습니다.

00:22:57.097 --> 00:23:06.233
여기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를,
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 보시면

00:23:06.333 --> 00:23:10.872
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
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라고

00:23:10.972 --> 00:23:14.449
한 거는 뭐냐면 서술자가
인물의 대화를 간접적으로

00:23:14.549 --> 00:23:16.125
제시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.

00:23:16.225 --> 00:23:21.516
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뭐냐면
송 영감이 어떤 인물이다.

00:23:21.616 --> 00:23:23.612
이런 판단들이 직접 나와줘야겠죠.

00:23:23.712 --> 00:23:27.251
우리가 편집자적 논평, 저번
강의 때 선생님이 수업했었는데

00:23:27.351 --> 00:23:30.255
편집자적 논평 이런
게 있어야 되는데.

00:23:30.355 --> 00:23:34.407
여기 서술자 개입, 서술자의
평가가 여기에서는 없어요.

00:23:34.507 --> 00:23:36.818
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
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

00:23:36.918 --> 00:23:38.468
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된다.

00:23:38.568 --> 00:23:40.907
여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
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

00:23:41.007 --> 00:23:43.961
앵두나뭇집 할머니가
등장을 했거든요.

00:23:44.061 --> 00:23:47.015
그러나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
전환된다는 게 틀렸어요.

00:23:47.115 --> 00:23:49.485
그래서 다른 인물의 발화를
통해 앵두나뭇집 할머니가

00:23:49.585 --> 00:23:50.833
등장하는 건 맞거든요.

00:23:50.933 --> 00:23:54.134
그런데 인물 간의 대립
구도라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.

00:23:54.234 --> 00:23:55.400
4번을 볼까요?

00:23:55.500 --> 00:23:58.082
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
직접 제시함으로써

00:23:58.182 --> 00:24:00.053
상황에 대한 인물의
태도를 드러낸다.

00:24:00.153 --> 00:24:03.034
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
제시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볼까요?

00:24:03.134 --> 00:24:04.519
네 번째 줄 볼까요?

00:24:04.619 --> 00:24:08.737
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라고
해서 직접 제시했죠.

00:24:08.837 --> 00:24:13.691
[A]의 밑에서 두 번째 줄
보니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

00:24:13.791 --> 00:24:17.290
치밀어 올라오곤 했다라고 하면 그
분노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죠,

00:24:17.390 --> 00:24:19.531
서술자를 통해서.

00:24:19.631 --> 00:24:23.307
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
거리와 결부해서 서술함으로써

00:24:23.407 --> 00:24:25.889
인물 간의 심리적
거리감을 드러낸다.

00:24:25.989 --> 00:24:30.307
즉, 바로 뭐냐면 인물의 심리 상태가
공간적 거리와 결부됐다는 얘기는

00:24:30.407 --> 00:24:32.721
뭐냐면 공간적으로
멀리 떨어져 있어.

00:24:32.821 --> 00:24:34.342
내가 그 사람을 멀리해.

00:24:34.442 --> 00:24:36.157
이런 내용이 나와줘야
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24:36.257 --> 00:24:38.763
여기에서는 한 공간에서 아이하고
밥을 먹고 있는 거니까

00:24:38.863 --> 00:24:42.116
공간적 거리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,
인물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도

00:24:42.216 --> 00:24:45.462
역시 마찬가지로
연결되는 게 틀렸겠죠.

00:24:45.562 --> 00:24:48.055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24:48.155 --> 00:24:50.334
4번 문제 보겠습니다.

00:24:50.434 --> 00:24:52.432
보기를 참고해서 (가),
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24:52.532 --> 00:24:54.515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그랬는데.

00:24:54.615 --> 00:24:56.604
보기는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.

00:24:56.704 --> 00:25:00.008
(가)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
받아서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

00:25:00.108 --> 00:25:03.066
이를 바라보는 행위에
개연성을 더하고 있다고 하면

00:25:03.166 --> 00:25:06.597
백자기 형체를 통해서, 여기
나오는 송 영감이 백자기 같은

00:25:06.697 --> 00:25:09.735
그런 아름다운 독을 만들기를
소망하고 있는 거니까

00:25:09.835 --> 00:25:11.941

그래서 이렇게 독을 깨는
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

00:25:12.041 --> 00:25:13.781
개연성 있어지는 거야.

00:25:13.881 --> 00:25:16.302
충분히 그럴 만하겠다,
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

00:25:16.402 --> 00:25:19.898
나가떨어지는과 같은
사실적인 행위를 통해.

00:25:19.998 --> 00:25:23.209
사실적인 행위가 있으니까 현실감,
현장감을 느껴지게 하는 거죠.

00:25:23.309 --> 00:25:26.220
뚜왕뚜왕 같은 효과음을
이용해서 현장성을 강조하고,

00:25:26.320 --> 00:25:27.790
내면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.

00:25:27.890 --> 00:25:30.507
그러니까 독이 깨지는 소리가
들리는 거니까 맞아요.

00:25:30.607 --> 00:25:34.704
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은 진술이
(가)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

00:25:34.804 --> 00:25:36.503
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묘사로.

00:25:36.603 --> 00:25:40.330
못나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면
비틀어진 독으로 지어졌으니까

00:25:40.430 --> 00:25:43.457
사물에 대한 묘사로 현실감을
높이고 있다, 맞아요.

00:25:43.557 --> 00:25:46.522
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
벌떡 일어나와 마치,

00:25:46.622 --> 00:25:47.662
이거 보세요.

00:25:47.762 --> 00:25:51.795
심장이 살아내는 것처럼 느껴지는은
모두 시각적인 묘사로

00:25:51.895 --> 00:25:53.766
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
있다고 했는데.

00:25:53.866 --> 00:25:57.358
이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,

우선 첫 번째 어려웠던 게 뭐냐면

00:25:57.458 --> 00:26:00.817
밑줄이 다 안 쳐져 있어서 글씨도
좀 달라지고 이러잖아요, 보통.

00:26:00.917 --> 00:26:04.198
이 부분, 부분에 대한 문제는
글씨체가 두껍게 나타난다거나

00:26:04.298 --> 00:26:07.267
그래야 되는데, 그냥
나타났어요, 실제 시험에서도.

00:26:07.367 --> 00:26:08.801
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죠.

00:26:08.901 --> 00:26:10.933
그 부분을 찾아야
하는데 못 찾아서.

00:26:11.033 --> 00:26:14.903
우선 심장이 살아나는 것처럼
느껴지는은 어디 나왔냐면

00:26:15.003 --> 00:26:20.789
송 영감의 대화, 왕손이 바로
위에 나오는 박살 나는 독들.

00:26:20.889 --> 00:26:25.887
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
것처럼 느껴지는 옥수거든요.

00:26:25.987 --> 00:26:28.832
그러면 심장이 박살난
게 느껴지는 옥수야.

00:26:28.932 --> 00:26:30.909
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.

00:26:31.009 --> 00:26:32.025
이게 좀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26:32.125 --> 00:26:36.117
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고
있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.

00:26:36.217 --> 00:26:38.217
심리와 성격은 달라요, 여러분.

00:26:38.317 --> 00:26:40.565
성격이라고 하면 그
사람의 캐릭터거든요.

00:26:40.665 --> 00:26:44.196
그 사람의 캐릭터이고, 심리는
뭐냐면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

00:26:44.296 --> 00:26:47.194
그 사람이 겪게 되는 마음
상태를 뜻하는 건데.

00:26:47.294 --> 00:26:49.510
여기에서는 뭐냐면 옥수의 아픔.

00:26:49.610 --> 00:26:53.570
옥수의 아픔을 시각적으로
형상화한 건 맞지만,

00:26:53.670 --> 00:26:57.613
이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
표현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.

00:26:57.713 --> 00:26:59.711
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었어요.

00:26:59.811 --> 00:27:03.174
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
문제 중의 하나입니다.

00:27:03.274 --> 00:27:06.302
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유형
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.

00:27:06.402 --> 00:27:09.814
유형 두 번째는 봄이라고
하는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.

00:27:09.914 --> 00:27:11.165
우선 1번 대표 유형 볼까요?

00:27:11.265 --> 00:27:14.321
1번 문제 보면 윗글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7:14.421 --> 00:27:16.762
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
이걸 확인하는 거고요.

00:27:16.862 --> 00:27:19.505
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
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면

00:27:19.605 --> 00:27:24.433
여기 나오는 늙은이의 봄, 봄이 또
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한다,

00:27:24.533 --> 00:27:26.804
자랑스러운 때, 겨울을 이겨
낸 동쪽 가지, 생활.

00:27:26.904 --> 00:27:30.087
이 부분, 부분에 대한 구절
풀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.

00:27:30.187 --> 00:27:31.784
내용을 한번 가볼게요.

00:27:31.884 --> 00:27:35.449
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
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,

00:27:35.549 --> 00:27:39.061
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을
인생의 끝없는 봄이다.

00:27:39.161 --> 00:27:42.731
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,
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.

00:27:42.831 --> 00:27:45.678
즉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
늙은이의 것이기도 하다

00:27:45.778 --> 00:27:47.233
이런 뜻이기도 하겠죠.

00:27:47.333 --> 00:27:51.888
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
인생의 끝없는 봄이라고 하는 것이

00:27:51.988 --> 00:27:54.662
이 사람이 지금
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

00:27:54.762 --> 00:27:57.354
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
보통 봄이라고 하는 것이

00:27:57.454 --> 00:28:00.287
청춘의 계절이다, 이렇게
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.

00:28:00.387 --> 00:28:03.297
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바로
뭐냐면 늙은이의 것이기도 하다.

00:28:03.397 --> 00:28:05.009
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

00:28:05.109 --> 00:28:08.000
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
있는 홑겹의 봄이지만

00:28:08.100 --> 00:28:12.855
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
아울러 지난 겹겹의 봄이다.

00:28:12.955 --> 00:28:16.471
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에
대해서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

00:28:16.571 --> 00:28:18.425
느낌들을 계속해서
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

00:28:18.525 --> 00:28:19.779
늙은이의 것이다.

00:28:19.879 --> 00:28:23.193
과거란 귀중한 재산, 과거라는
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

00:28:23.293 --> 00:28:26.397
고이고 고여서, 과거가 고여서
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.

00:28:26.497 --> 00:28:30.357
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
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.

00:28:30.457 --> 00:28:32.692
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
호수가 아름답고

00:28:32.792 --> 00:28:34.676
과거가 길수록 오늘이
더 큰 것이다.

00:28:34.776 --> 00:28:35.774
무슨 얘기일까?

00:28:35.874 --> 00:28:41.549
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더 크다는
얘기는 나이가 더 들수록,

00:28:41.649 --> 00:28:45.242
나이가 더 늙을수록 봄이라고 하는
게 더 벅차고 더욱 아름답다,

00:28:45.342 --> 00:28:47.218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28:47.318 --> 00:28:51.046
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
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.

00:28:51.146 --> 00:28:52.124
왜?

00:28:52.224 --> 00:28:53.291
몇 년 안 남았잖아.

00:28:53.391 --> 00:28:55.529
그러면 봄을 많이 못 맞을까
걱정한다는 얘기예요.

00:28:55.629 --> 00:28:59.611
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
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.

00:28:59.711 --> 00:29:02.531
그냥 하나 더 봄이 느는
것을 대견하게 생각해야지

00:29:02.631 --> 00:29:05.567
이제 몇 번 안 남았네, 이렇게
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

00:29:05.667 --> 00:29:09.821
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
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

00:29:09.921 --> 00:29:12.007

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
저기를 걸어왔구나 하고

00:29:12.107 --> 00:29:14.279
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.

00:29:14.379 --> 00:29:18.336
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올
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

00:29:18.436 --> 00:29:19.706
발견하는 때도 있다.

00:29:19.806 --> 00:29:21.554
돌아보니까 더 아름답다는 거죠.

00:29:21.654 --> 00:29:24.461
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
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

00:29:24.561 --> 00:29:27.654
거친 모래알만 쥐어질
때 그것이 슬프다.

00:29:27.754 --> 00:29:31.770
지난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거친
모래알이 쥐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

00:29:31.870 --> 00:29:34.342
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
좀 불편한 기억이라든가

00:29:34.442 --> 00:29:36.071
이런 것들이 있을 때 슬프다.

00:29:36.171 --> 00:29:39.242
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
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.

00:29:39.342 --> 00:29:40.954
뜰 앞에 한 그루
밀감나무가 서 있다.

00:29:41.054 --> 00:29:44.515
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한
싹이 움 돋기 시작하고요.

00:29:44.615 --> 00:29:47.133
굵은 가지에서도 푸른
생기가 넘쳐 흐른다.

00:29:47.233 --> 00:29:49.027
미구에 잎이 퍼지고.

00:29:49.127 --> 00:29:52.227
미구라고 하는 게 얼마
오르지 않아서 잎이 퍼지고

00:29:52.327 --> 00:29:54.177
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.

00:29:54.277 --> 00:29:55.900
집안 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.

00:29:56.000 --> 00:29:58.446
밀감나무에 대한 기대감이
나타나 있습니다.

00:29:58.546 --> 00:30:00.560
그러나 서쪽 가지에는 소식이 없다.

00:30:00.660 --> 00:30:01.862
동쪽 가지는 있는데.

00:30:01.962 --> 00:30:03.633
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이다.

00:30:03.733 --> 00:30:05.243
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가 없다.

00:30:05.343 --> 00:30:08.070
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
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

00:30:08.170 --> 00:30:12.727
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, 봄이
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어요.

00:30:12.827 --> 00:30:17.057
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
한쪽, 동쪽 가지는 살고

00:30:17.157 --> 00:30:19.666
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
생각하지 못했어.

00:30:19.766 --> 00:30:21.656
그런데 보니까 죽어 있단 말이야.

00:30:21.756 --> 00:30:24.581
하지만 눈보라 추위 속에서도
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

00:30:24.681 --> 00:30:28.628
겨울을 살아왔고, 한 가지는 그 속에서
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.

00:30:28.728 --> 00:30:31.021
거기에 대한 깨달음을
얻게 되는 거죠.

00:30:31.121 --> 00:30:33.484
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
발랄한 생의 의지,

00:30:33.584 --> 00:30:36.481
지난겨울 석 달 동안
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저항.

00:30:36.581 --> 00:30:38.495
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.

00:30:38.595 --> 00:30:41.257
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
찬사를 보내고 싶다.

00:30:41.357 --> 00:30:45.167
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
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일 뿐이야.

00:30:45.267 --> 00:30:47.727
그러나 우리 인간은
다르다는 얘기겠죠.

00:30:47.827 --> 00:30:49.187
교목은 큰 나무입니다.

00:30:49.287 --> 00:30:52.710
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,
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

00:30:52.810 --> 00:30:53.938
지니게 된다.

00:30:54.038 --> 00:30:58.863
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
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다.

00:30:58.963 --> 00:31:02.195
내 몸에 간직된 봄이고,
똑같을 거라는 얘기죠.

00:31:02.295 --> 00:31:05.636
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
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.

00:31:05.736 --> 00:31:08.657
뚜렷하게 남는 봄이라고 하는
기억은 별로 없을 것이다.

00:31:08.757 --> 00:31:13.345
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
번 보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,

00:31:13.445 --> 00:31:16.444
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
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

00:31:16.544 --> 00:31:20.845
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
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

00:31:20.945 --> 00:31:24.508
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
해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.

00:31:24.608 --> 00:31:26.819
그러니까 이 사람이
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

00:31:26.919 --> 00:31:29.640
봄을 봄답게 느끼는 게
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.

00:31:29.740 --> 00:31:31.798
젊음의 봄만 이렇게
한정하는 건 아니고

00:31:31.898 --> 00:31:34.750
늙은이의 봄도 괜찮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

00:31:34.850 --> 00:31:37.176
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
자세가 필요하다.

00:31:37.276 --> 00:31:39.761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.

00:31:39.861 --> 00:31:41.560
상당히 성찰적이죠.

00:31:41.660 --> 00:31:43.941
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
가득 차 있는 반면에

00:31:44.041 --> 00:31:45.570
늙은이의 봄은 뭐라고 했습니까?

00:31:45.670 --> 00:31:46.518
위에 볼까요?

00:31:46.618 --> 00:31:49.403
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니고
있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31:49.503 --> 00:31:52.299
오늘은 과거와 단절된 것으로
가치를 찾기 어렵다.

00:31:52.399 --> 00:31:53.879
말도 안 되죠.

00:31:53.979 --> 00:31:55.049
X입니다.

00:31:55.149 --> 00:31:59.699
뜰 앞 밀감나무의 살아 있는 동쪽
가지의 현재는 저항, 분투, 인내.

00:31:59.799 --> 00:32:03.439
잘 이겨낸 결과로 지금
살아남은 거니까 적절한 거죠.

00:32:03.539 --> 00:32:05.383
O입니다.

00:32:05.483 --> 00:32:07.130
1번 보겠습니다.

00:32:07.230 --> 00:32:11.437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2:11.537 --> 00:32:14.973
우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
객관적이라는 말이 틀렸죠.

00:32:15.073 --> 00:32:17.661
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
얘기하고 있으니까요.

00:32:17.761 --> 00:32:21.249
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을
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.

00:32:21.349 --> 00:32:22.655
대화하고 있지 않죠.

00:32:22.755 --> 00:32:24.139
타인의 견해 인용하고
있지 않습니다.

00:32:24.239 --> 00:32:25.471
정답은 5번인데요.

00:32:25.571 --> 00:32:26.982
일상적 통념에서 출발해서.

00:32:27.082 --> 00:32:30.648
일상적 통념은 바로 뭐냐면 봄은
청춘의 계절이라고 얘기했던 게

00:32:30.748 --> 00:32:32.644
일상적인 통념이고요.

00:32:32.744 --> 00:32:34.004
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.

00:32:34.104 --> 00:32:36.111
과거가 소중하다는 걸
얘기하고 있는 거니까

00:32:36.211 --> 00:32:38.339
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32:38.439 --> 00:32:39.376
2번 볼까요?

00:32:39.476 --> 00:32:43.641
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.

00:32:43.741 --> 00:32:46.614
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
비유한 것으로 봤을 때

00:32:46.714 --> 00:32:49.525
글쓴이는 세월에 대한
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.

00:32:49.625 --> 00:32:50.442
틀렸습니다.

00:32:50.542 --> 00:32:52.591

지나온 삶에 과거의 삶이
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

00:32:52.691 --> 00:32:54.867
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

00:32:54.967 --> 00:32:57.295
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
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,

00:32:57.395 --> 00:32:59.024
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

00:32:59.124 --> 00:33:01.741
과거가 쌓여서 현재가
된다 그랬으니까요.

00:33:01.841 --> 00:33:04.124
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
추억하는 것으로 보아

00:33:04.224 --> 00:33:06.729
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
봄으로 회귀하려고 한다.

00:33:06.829 --> 00:33:08.955
돌아가려고 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.

00:33:09.055 --> 00:33:11.476
겨울을 이겨낸 동쪽 가지를
주목한 것으로 봤을 때

00:33:11.576 --> 00:33:13.926
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
봄을 맞이하게 될 거다.

00:33:14.026 --> 00:33:15.828
이게 정답이죠.

00:33:15.928 --> 00:33:19.102
삶의 의지, 어떤 투쟁, 분투의
결과로 그게 살아남아 있잖아요.

00:33:19.202 --> 00:33:22.394
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33:22.494 --> 00:33:26.416
생활에 따라 억만 년 봄이 다 내
몸에 간직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

00:33:26.516 --> 00:33:29.731
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, 여러 번
보는 것이 진정한 가치는 아니다.

00:33:29.831 --> 00:33:32.934
거기에 하나의 봄, 여러 봄이
의미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

00:33:33.034 --> 00:33:35.973
여러 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

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.

00:33:36.073 --> 00:33:37.912
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33:38.012 --> 00:33:40.197
수필은 의외로 어렵지는
않은 내용입니다.

00:33:40.297 --> 00:33:44.296
뭐가 어렵냐면 수필 같은
경우는 글쓴이의 의견이

00:33:44.396 --> 00:33:46.826
직접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
별로 어렵지는 않은데.

00:33:46.926 --> 00:33:49.174
소설이나 이런 것들은
숨겨져서 나타나잖아요.

00:33:49.274 --> 00:33:50.580
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
뿐입니다, 여러분.

00:33:50.680 --> 00:33:53.048
여러분, 유형 연습
여기까지 마치고요.

00:33:53.148 --> 00:33:55.582
다음 시간에 마지막 유형으로
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

00:33:55.682 --> 00:33:57.168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